

광주-대구시립합창단 아름다운 하모니

합창 공연 ‘카르미나 부라나’
기쁨·절망·희망·슬픔 노래
30일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광주와 대구시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펼쳐진다.
광주시립합창단 제192회 정기연주회 ‘카르미나 부라나’가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열린다.

‘카르미나 부라나’는 운명이라는 수레바퀴 안에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쁨과 절망, 희망과 슬픔을 노래하는 작품이다. 작곡가 칼 오르프가 본래 연주회장이 아닌 극장용으로 의도한 작품으로, 1937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초연됐다.

라틴어 카르미나(Carmina)는 카르멘(Carmen)의 복수형으로 매우 세속적인 의미에서 노래의 의미를 지닌다. 카르미나는 독일에서 주로 학생들의 노래를 의미했지만, 중세시대 문학 작품에서는 수도승들이 일과를 끝낸 후 엄격한 생활로 받는 스트레스를 노래와 술로 해소하는 등 세속적 쾌락을 추구한다는 뜻도 지녔다.

김인재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은 이번 공



바리톤 염경묵



소프라노 박미자



테너 강동명

연에는 광주시립합창단과 함께 달빛동맹의 의미를 담아 대구시립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인 소프라노 박미자를 비롯해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등에서 수학하고 다양한 무대에 오른 테너 강동명, 뉴욕시티오페라단 상주 단원을 역임한 바리톤 염경묵도 함께 협연한다.

서극 세상을 다스리는 운명의 여신을 시작으로 봄의 노래, 목장에서, 선술집에서, 사랑의 뜰, 불랑지플로와 헬레나, 그리고 다시 세상을 다스리는 운명의 여신으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공연의 시작과 마지막곡 ‘O! Fortuna(오!

운명의 여신여)’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인상적인 합창의 선율로 인해 드라마나 영화 또는 광고의 배경음악으로도 삽입돼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웅장하고 화려한 합창음악의 진수로 20세기 클래식 작품 중 최대의 히트곡으로 손꼽힌다.

이번 공연은 공연 무대의 공간적 제한상 무용수의 등장을 비롯한 연출적인 요소는 포함되지 않은 순수 음악공연으로 만나 볼 수 있다.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석 만원이다. 티켓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이나라 기자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에 슈퍼주니어 최시원

오는 4월 7일 개막하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에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배우 최시원(사진)이 선정됐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최시원이 세련되고 절제된 이미지와 함께 친근함까지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관객층 층을 아우르고 다양성을 지향하는 광주비엔날레 브랜드와 부합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2005년 슈퍼주니어 멤버로 데뷔한 최시원은 18년 활동 기간 동안 가수와 배우, 공연 무대 등으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최시원은 “아시아 최대 권위의 미술제인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스럽다”며 “미술의 도시 광주와 한국을 세계 속에 알리



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행사 기간 아시아권 젊은 층 관객 유입이 증가하는 ‘한류스타 최시원 효과’와 함께 한국의 현대미술이 세계 속에 알려지는 ‘K-ART’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로로는 진영(2018년), 현빈(2016년), 정우성(2014년), 이병헌·임수정(2012년) 등 한류스타들이 참여했다.

/이나라 기자

영암도기박물관 ‘도자, 그림을 그리다’ 특별전

3차원 도자기 캔버스로 활용

영암도기박물관은 오는 30일 3차원의 도자기를 회화적 캔버스로 활용한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는 ‘도자, 그림을 그리다’ 특별전을 개막한다.

3차원의 도자기를 캔버스로 활용하거나 회화적 요소를 차용한 혁신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는 전시로 구경모, 김은정, 서희수, 이승희, 이태호, 최성재, 최수미 작가가 참여했다.

구경모 작가는 자연의 생물인 흙과 광물을 소재로 다양한 평면과 입체적 작업을 시도한 작품을 선보인다. 1,220~1,300도로 고온초벌한 도판 위에 다양한 유약을 붓고 철가루를 뿌려 마치 그림을 그리는 듯 작업했다. 도판이 천천히 수분을 흡수하는 동안 유약이 움직이고 섞여 자연스러운 문양이 표현된다.

김은정 작가는 원형의 평면 세라믹판을 캔버스 삼았고 식물들의 각 부분을 가져와 본을 뜨고 조합해 제작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회화작품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방향에 따라 매 순간 다른 모습이어서 독특한 매력을



최정재 작가의 출품작

/영암군 제공

느껴볼 수 있다.

영암은 8~9세기경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국내 최초의 고회화 사유도기인 구림도기가 출토된 곳이자 창조적인 사고로 기술의 혁신을 이뤘던 장인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는 곳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도자 작품의 일체적인 공간감과 조형미를 넘어 고유의 질감과 소성과정에서 얻어진 깊은 색감 등 독특하고 다양한 도자 예술의 회화적 혁신성을 살펴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전은 오는 9월 말까지 열린다.

/영암=최복섭 기자



국립광주과학관은 27일 선명학교 중학생·교사 100여명을 특별초청하는 행사를 가졌다.

국립광주과학관 휴관일 특별한 초청

선명학교 학생들 과학전시 관람

국립광주과학관은 27일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후원회장 김홍균·남선산업 회장)와 함께 광주 선명학교 중학생과 교사 100여명을 과학관으로 초청해 “2023년 1분기 휴관일 특별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초청행사는 광주, 전남·전북 지역 소재

특수학교 및 다문화학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광주 선명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과학관으로 초청된 학생들은 과학관 직원들과 함께 상설전시관, 특수영상관 스페이스 360, 로봇 댄스공연 등을 관람하고 과학관에서 준비한 점심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국립광주과학관 전태호 관장직무대리는 “국

립광주과학관은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와 함께 과학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과학 꿈나무들을 위한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에 지역 기업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는 분기별 휴관일 특별 초청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찾아가는 과학관’, ‘사이언스 캠프’ 등 과학문화 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나라 기자

문체부 ‘오늘전통’ 만들 청년 창업기업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2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오늘전통’을 만들어갈 청년 창업기업 10곳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늘전통창업’은 2020년 시작한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의 새로운 이름이다. 청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전통 문화상품을 기획·제작하는 창업 기업을 지원해 전통 문화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 3년

간의 사업에서는 유망한 청년 창업기업 131곳을 발굴해 육성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공모에는 전통문화 분야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기술창업의 경우 만 49세 이하)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kcdf.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 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าวน์โหลด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1 ONE store